

초대의 글

한독사회과학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정범구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심포지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회 균등’과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적 수준에서 시민은 공감, 역할거리, 모호성에 대한 관용, 그리고 소통능력을 함양하고 신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제도화된 도덕·윤리와 담론형태에 지향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성과 보편성을 위해 노력하는 초문화의 상태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여러 문화·민족·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해주신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정범구 의원님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학술대회 장소와 만찬을 제공해주신 유재일 국회도서관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5월 31일

한독사회과학회장 허영식

한독사회과학회-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공동심포지엄 개최배경

한국과 독일은 전통적인 동종 사회 국가에서 이민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지난 50년간 이 과정을 거쳤으며 한국은 대규모 이주민을 받아 드리는 일이 아직 새로운 경험이다.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한국과 독일은 적극적인 사회 통합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문화 사회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 나라 모두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중기적으로 볼 때 이주민에게 문호를 개방해야만 하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주민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동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정책적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과 독일의 경우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바로 이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주민이라는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 통합의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국제 학술회의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기회균등”과 “이주민의 정치참여”라는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한국과 독일이 이 분야에 쌓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비교 토론을 통해 결론을 얻는 동시에 성공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 제안도 나오리라 희망한다.

Programm

구분	일 정	비고
개회식 13:30 - 13:50	개회사: 허영식 교수(한독사회과학회장) 인사말: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축 사: 정범구 의원(민주당)	
제1회의 13:50 - 16:00	제1회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 1. 독일사례: 하치 할릴 우스루찬 교수 (두이스부르크-에센 대학교) 2. 한국사례: 모상현 박사 (한국청소년정책개발연구원) 토론: 이복실 실장(여성가족부) 강대현 박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종희 박사(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회: 이규영 교수 (서강대)
16:00 - 16:20	휴 식	
제2회의 16:20 - 18:30	제2회의: 이민자와 탈북자의 정치 참여 1. 독일사례: 랄레 악귄 박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지사청) 2. 한국사례: 신두철 교수(선거연수원) 토론: 김용찬 교수(경인교육대학교) 정창화 교수(단국대학교) 최치원 교수(고려대)	사회: 김상겸 교수 (동국대)

Programm

구분	일 정	비고
Eröffnung 13:30 - 13:50	Eröffnungswort: Prof. Dr. HUH Young Sik (Präsident der KDGS) Grußwort: Christoph POHLMANN (Landesvertreter der FES Korea) Glückwunschsansprache: Dr. JONG Bum Goo (Abgeordneter)	
Session 1 13:50 - 16:00	Session 1: Chancengleichheit im Bildungswesen für junge MigrantInnen 1. Beispiel: Deutschland – Prof. Dr. Haci Halil USLUCAN (Univ. Duisburg–Essen) 2. Beispiel: Korea – Dr. MO Sang Hyu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iskutanten: Frau LEE Bok Sil (Min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Dr. KANG Dae Hyu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Dr. LEE Jong Hee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Offene Diskussion	Moderator: Prof. Dr. LEE Kyu Young (Sogang Univ.)
16:00 - 16:20	Kaffeepause	
Session 2 16:20 - 18:30	Session 2: Gesellschaftspolitische Partizipation von MigrantInnen 1. Beispiel: Deutschland – Dr. Lale AKGÜN (Staatskanzlei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 Beispiel: Korea – Prof. Dr. SHIN Du Chel (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 for Democracy) Diskutanten: Prof. Dr. KIM Yong Chan (Gyeongin National Univ. of Education) Prof. Dr. JUNG Chang Hwa (Dankook Univ.) Prof. Dr. CHOI Chi Won (Korea Univ.) Offene Diskussion	Moderator: Prof. Dr. KIM Sang Gyum (Dong guk Univ.)